

실습학기(인턴쉽) 최종보고서

- 인턴쉽 산업체명 : 워크컴퍼니
- 인턴쉽 과정명 : 워크컴퍼니 인턴쉽 과정
- 인턴쉽 기간 : 2020. 7. 17. ~ 2020. 8. 20.

2020. 08. 31.

우 송 대 학 교

외식조리학부 글로벌한식조리전공 3학년

백지

※ 해외인턴쉽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합니다.

I. 서론

대학생활을 하다보면 학점, 과제, 시험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등 신경 쓸 일이 많아 알바나 다른 업장에서 실무 경력을 쌓기가 어렵다. 때문에 이론만으로 부족한 것을 인턴쉽 과정을 통해 시간을 따로 할애할 필요 없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다. 재학중 일정한 기간 동안 업장에 나가 일해 보는 기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기회로 인해 원하던 곳에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전혀 해보지 못해 망설이고 있던 다른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호텔 같은 곳이 아닌 푸드 잡지사, 푸드스타일링 같은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서 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기에 졸업 후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인턴쉽 과정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II. 본론

잡지사 바앤다이닝은 편집팀, 마케팅팀, 디자인팀으로 나뉜다. 편집팀은 취재를 다니며 글을 쓰는 일을, 마케팅팀은 섭외, 제안서작성 등의 일을, 마지막으로 디자인팀은 말 그대로 잡지를 디자인 하는 일을 포토샵 등 컴퓨터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고 일을 하신다. 인턴쉽 기간 동안 편집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첫 출근날 8월호 마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 1주는 서울에서 꼭 맛봐야하는 맛집 200곳 sns계정과 대표메뉴 찾고 막걸리 8종을 테이스팅한 후 평가를 했다. 또 7월호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는 일을 했으며, 8월호 마감하기전 틀린 부분을 고치는 교열 반영하는 일을 했다. 2주는 편집팀의 휴가로 짧게 마케팅팀 일 제안서ppt 자료찾는 일을 했다. 그리고 외식 트렌드 기사를 찾아 정리하여 제출을 했다. 이 일은 월, 수, 금마다 하는 일이다. 3주는 5만원 이하 매스티지 식당을 지역별로 찾고 우리나라 지역별 맥주 브루어리를 찾아 정리했다. 4주는 기자님께서 육포장인 취재를 다녀오신 후 인터뷰한 녹취록을 풀어달라고 하셨다. 또 행사 때 협찬 받은 제품촬영 어시스트 를 했으며, 레스토랑 '모스꼬라' 셰프님께서 토마토를 주제로 한 음식만드는 촬영이 있어 어시스트로 따라갔다. 5주는 '강정이넘치는집' 취재 녹취록을 풀고, 에일 맥주 5종 테이스팅한 후 평가를 진행했다. 또 9월호에 쌀가공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여, 아산 '농심미분' 쌀가루, 연천 '성찬식품' 누룽지 인터뷰 촬영을 다녀왔다. 잡지사 바앤다이닝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 요리가 아닌 조사, 취재를 통해 요리, 외식업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Ⅲ. 결 론

이번에 기회가 생겨 생각해 본 적 없는 잡지사로 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정보도 전혀 없는 상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적응을 하고 잡지사 일도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 원했던 곳에 못가 아쉽긴 했지만, 내가 또 언제 잡지사에서 일을 해볼까 싶어 최선을 다해 실습을 마쳤다. 실습기간이 잡지 한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기간이어서 이번 기회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접해볼 수 있었다. 주로 인턴쉽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주로 가는데, 의외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곳으로 가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엔 후배들이 인턴쉽에 대해 고민을 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곳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다. 졸업을 하면 내가 가고 싶은 업장 아니면 호텔 등에서 관심히 많고 다른 분야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보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계기로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인턴쉽 과정을 통해서 못해본 다른 분야를 도전해 해보고 이 기회로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